▲ 평택지부 사무실 앞. 좌측부터 이규철 회원, 이공훈 고문, 김철환 이사, 김용진 지부장, 김용식 부지부장, 이종국 이사, 신동선 간사

사양관리 교육과 기자재 원가 공급으로 혜택 주는

경기 평택지부

취재 : 정재은

경기 평택지부(김용진 지부장, 만47세)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달 월례회의와 함께 양돈하는데 필요한 사양관리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은 사양, 방역, 경영, 분뇨처리와 주요 현안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다. 또한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다양한 기자재를 원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절감의 혜택을 주고 있다.

평택지부는 평택시 농수산과(과장 조건형)의 협조 아래 농장 진출입 자동무인소독기 선정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분뇨 처리를 위한 환경개선제와 톱밥 구입비 보조를 받는 등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평택지부는 매년 11월초 평택시 농업축제 행사 때 무료 시식회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 촉진 홍보를 하고 있으며,

▲ 평택지부 김용진 지부장.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에 참여해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지역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평택지부

평택지부는 평택지역의 친목단체로 시작되었던 돈우회가 모태가 되어 양돈인들의 위상 제고, 권익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1986년 11월 29일 설립되었다. 현재 제8대 김용진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단합하여 평택지역의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평택에서는 134개의 양돈농가가 17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평택지부는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80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평택지역 전체 사육두수의 80% 수준인 14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임원은 김용진 지부장, 김용식 부지부장(총무 겸임, 만54세), 정진빈 감사, 9명의 이사를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평택지부는 2,000두 규모 이상 농가 월 5만원, 1,000~2,000두 규모 농가 월 3만원, 1,000두 이하 농가 월 2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김용진 지부장을 비롯한 전 임원들은 회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양돈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세미나 및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시 농수산과 등의 관련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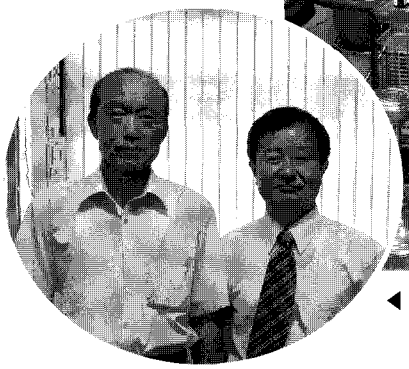
월례회의와 교육 및 세미나 개최로 유익한 정보 제공

평택지부는 질병 발생 때를 제외하고 매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월례회의를 빠짐없이 개최한다. 축산업등록제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세적용 등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전달해 주며, 회원들은 서로 의견교환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평택지부는 월례회의 개최시 양돈하는데 필요한 사양 및 경영관리, 질병예방, 분뇨처리, 계절대책 등에 관한 교육 및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세진컨설팅 김기룡 소장의 하절기 교배전략 등 방서대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의가 있었으며, 7월에

▲ 2003년 8월 22일 그린가든웨딩홀에서 개최된 월례회의. 김용진 지부장은 '현장에서 전하는 양돈 핵심 사양관리'라는 책을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 평택지부 사무실 내부 모습. 회원들은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김용식 부지부장(좌측)과 김용진 지부장

는 홍문표 고문의 돼지 유사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이 있었다. 8월의 경우에는 선진 크린포크 김성국 팀장의 계열화 사업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김용진 지부장은 '현장에서 전하는 양돈 핵심 사양관리'라는 책을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평택시청의 이한덕 계장이 인터넷 다음(Daum)에 평택축산인방(http://cafe.daum.net/ptlivestock)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평택의 전축산인들은 이곳을 통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관련기관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평택지부에서는 월례회의와 교육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회원들에게 양돈하는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돈농가의 성적 향상과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제공

평택지부는 현재 각종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원가에 공급하고 있다. 모돈밥통, 스텐포유기, 자돈 건식·습식급이기, 육성돈 건식·습식급이기, 이표, 니쁠(급수기), 램프, 보온각, 할로겐 각, 분만틀, 스톨 등 대부분의 기자재를 구매하여 사무실에 항상 비치해 놓고 있다.

회원들은 필요한 기자재를 즉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또한 지부에서는 원가로 제공하고 있어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에 비하여 10% 정도가 할인되기 때문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비용절감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 지부장은 "여러 곳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품목별로 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기자재 업체를 선정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평택지부는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기자재를 원가에 공급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혜택을 주고 있다.

평택시와 협조아래 분뇨문제 해결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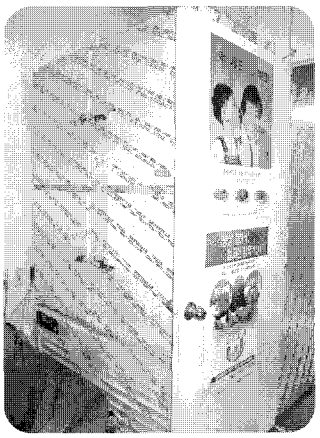
평택지부는 양돈농가의 고충인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진 지부장은 "평택지부는 평택시의 협조아래 환경개선제와 톱밥 구입시 일부 보조를 받아 회원들이 분뇨처리를 해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지부는 평택시로부터 톤당 1~2kg의 환경개선제용 사료첨가제 구입비를 보조받고 있다. 1년 1,500두 규모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드는 비용의 1/5 수준인 500만원을 보조 받는 것이다. 또한 평택시는 중소규모 농가(3,000두 이상 농가 제외)를 위해 톱밥 구입시 구입비용의 30%를 보조해 주고 있다. 김 지부장은 "여름에는 위탁업체 3곳을 선정하여 해양투기 위주로 분뇨처리를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각종 보조비율과 지원을 늘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와 철저한 방역활동 전개

평택지부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평택시청 광장에서 11개 업체의 방역시설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설 설치시 총비용 300만원 중 경기도와 평택시로부터 각각 40%인 120만원을 보조받으며, 자부담은 20%인 60만원이다. 김 지부장은 "올해에는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배정이 낙농농가에 많이 되었지만, 양돈농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7월 22일 평택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11개 업체의 방역시설 시연회



◀ 평택지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해 백신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대장에 구입기록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평택지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해 백신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대장에 구입기록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한편 평택지부 회원들은 질병차단을 위해 각자 기본적으로 소독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소독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지부에서는 시와 연계하여 2명의 방역요원이 10일에 1번씩 소독을 하고 채혈작업 역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지난 2000년, 2002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을 때, 평택시에서는 경찰과 군인 등을 동원하여 톨게이트와 도로입구에서 차단방역을 하였으며, 지부

▲ 평택지부는 매년 평택시 농업축제 기간인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평택종합운동장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는 위로 차원에서 돼지와 간식 등을 증정하였다."고 말했다.

시식회와 불우이웃돕기 행사 전개로 이미지 제고

평택지부는 매년 평택시 농업축제 기간인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평택종합운동장에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와 함께 문예회관에서 돼지고기 요리 솜씨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시식회를 통해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 및 안정성 홍보를 하며, 수출부위 소비촉진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0년부터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평택시(시장 김선기)에 돼지 30두를 기증하고 있으며,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평택지부 회원들의 사기의욕 고취를 위해 10월이나 11월 단풍이 들 때 산행 등의 야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국제축산박람회나 브랜드전 견학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 지난 2002년 11월 2일 평택시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돼지고기 요리 솜씨대회.

양돈인들을 위한 제도 및 지원이 정착되어야

김용진 지부장은 "자조금 사업이 빨리 정착되어 돼지고기 수출부위를 이용한 요리 개발이 이루어지고, 양돈인들의 고충인 분뇨처리 문제도 표준모델 제시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식 부지부장은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이 불가피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돈인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세를 적용할 경우 현재 A등급에서 D등급까지의 평균을 발표하던 것을 A등급에서 C등급까지의 규격돈 평균가격으로 발표한다면 전국 평균가격과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부는 회원들이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한동안 사육이 불가능 할 때 농장 임대 계약을 하여 위탁사육 해주는 헬퍼(helper)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김용진 지부장은 "양돈농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은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공생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양돈인들을 위한 제도 및 지원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돈